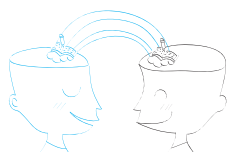


어리석어지는 공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공부



이진홍 뇌성마비 전문 물리치료사로 서울재활병원 소아·청소년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학습공동체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에서 자연과학 공부의 재미와 감동에 푹 빠져있다. soldarela@gmail.com

자연과학에 '미친' 사람들을 만나다

요즘의 나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별들의 나이를 짐작해보고, 민들레 홀씨를 보며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시간을 가늠해본다. 뛰어가는 앞 사람을 보며 인류가 더 많은 숨을 쉬기 위해 척추를 어떻게 바꿔왔는지를 생각하고, 강아지 목줄을 잡은 손을 보며 1억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쇠골을 상상한다. 며칠 전에는 고양이가 발밑에서 '야옹' 소리를 내자 머릿속에 고양이 뇌가 떠올라 문득 인간 언어의 우수함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나는 요즘 주변의 모든 것이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박문호 박사의 자연과학 세상'이 있다.

2011년 9월 4일은 박문호 박사를 만나 내 사고와 인식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날이다. 강의 내내 그분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이 '이 신나는 세계'를 경험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살피며 신이 난듯했고 난 그런 그

가 들뜬 톰 소여 같다고 생각했다. 길을 잃지 않고 하나의 주제를 목적지까지 쉴 틈 없이 몰아가는 강의에서 나는 잠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4시간의 강렬한 강의 끝에 뇌과학이 왜 특별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뇌과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신경세포, 시냅스, 뇌의 구조 같은 뇌 지식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현상을 꿰뚫기 위함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나는 배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바쁜 시간을 쪼개 모인 5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해한 자연과학을 발표하게 되었다. 엄청나게 긴장되기도 했지만 자기가 공부한 것을 사람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나는 제대로 깨달았다. 그 후로 경주와 제주도, 지리산을 비롯한 국내 학습 탐사와 미국 남서부 탐사, 천문학·뇌과학 모임, 서호주 탐사 책 편집 모임을 통해 나와 박자세와의 인연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어느덧 나는 '자연과학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수식이 붙는 모임의 핵에 자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배울수록 어리석어지는 기쁨

박자세는 그저 공부를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다. 박자세는 자연과학 문화운동 단체이기도 하다. 자연과학 문화운동의 방법으로는 '교과서 중심주의 공부'와 '몸 훈련주의 원칙'이 있다. 137억 년 우주의 진화, 뇌과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교과서 중심주의 공부는 자연과학대학에서 쓰이는 자연과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철저히 암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문학의 완성 또한 자연과학 학습을 전제로 두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본다. 몸 훈련주의 원칙은 쉽지 않은 자연과학 학습에 요구되는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체를 단련하자는 것이다. 해외학습탐사와 국내학습탐사는 몸 훈련에 해당되고, 그 결과물로 『서호주』라는 책이 한 권 출판됐다.

박자세의 운동성은 교과서 공부와 몸 훈련 활동에 투여된 시간과 지속성으로 드러난다. 137억 년 우주진화에 대한 공부가 총 3회에 걸쳐 44번의 강의로 진행됐고, 특별한 뇌과학이 총 3회 16강, 55회에 걸친 천문우주+뇌과학 모임과 327차례의 회원 발표가 있었다.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5백 시간이 넘는 시간을 함께했다. 올해도 뇌과학 심포지엄을 비롯한 다양한 강의를 이어지고 있다.

이 모임과 강의 횟수 이면엔 자연과학이 주는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숨어 있다. 우주의 크기가 수학이라는 언어로 해석되고, 인간이라는 현상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인간의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노트에 뇌 해부 구조를 얼마나 많이 그렸는지..., 그 무엇보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박문호 박사의 열정이 가장 빛났다.

내가 박자세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자연과학 공부를 해서 뭐가 바뀔니까?”, 도대체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니까?” 결국 “공부가 밥 먹여주나?”라는 말을 돌려 한 것이리라.

자연과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나’를 다시 보게 되었다. 높은 산이 가장 가벼우며, 태양계에서 파도치는 바다는 지구에만 있으며, 내 조상이 묻힌 산은 지구의 나이를 하루로 환산하면 단 1초도 되지 않아 사라진다는 사실. 그 언젠가 지구의 바닷물이 150℃가 넘었고, 떨어지는 빗방울은 300℃가 넘었으며, 대지에 수천만 개의 운석이 떨어졌고 그 흔적이 대륙의 이동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구에 존재하는 ‘나’를 다시 보게 된 것이다.

“생명은 위대한 지질학적 힘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이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자연과학 강의를 듣고 나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고 얘기하는 시인의 말보다 “함부로 돌맹이를 죽었다고 하지 마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내 발에 스쳐 튕기는 돌맹이도 내 나이보다 더한 세월을 살았으니 돌맹이 하나도 선배이며, 어버이며, 역사인 것이다. 이제 내가 밟는 땅도, 발에 차이는 자갈도, 바닷가에 모래도, 출렁이는 파도도 감히 함부로 논할 수 없게 된다. 이 모두가 수많은 시절을 견뎌온 모습이니 스치는 바람에도 조심스레 고개를 숙여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놀라운 것은 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 채 일 년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 나의 깨달음과 세상에 대한 벅찬 감동은 박자세를 만난 시간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태껏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어리석어진다. 아는 순간 그동안 몰랐던 나를 발견하기에 당연히 그러하다. 어리석어지는 순간 나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자연과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어리석어지는 패러독스에 빠지는 기쁨을 느끼고 있다.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만남과 배움

자연과학 공부를 통해 익숙한 것과 아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고, 일상에 매몰된 인간이 만든 가치가 진짜인지 질문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듯 일상에 매몰돼 자신 외의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던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공부를 통해 ‘나와 우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의 의미에 대해 박문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한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이나 절대를 느끼면 감정을 이입하게 됩니다. 저는 인문, 예술, 종교를 통한 감동의 눈물은 낮은 차원의 눈물이라 봅니다. 철학이나 종교는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뇌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것은 그저 자연 속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탐사대는 자연을 직접 만나며, 즉 그 철학과 인문학과 예술을 만든 뇌의 본질 안에서 생각의 구조가 완전히 용해되고,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주적 현상에 동참하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사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탄생한다. 인식의 전환이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은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정도로 감동적이다. 자연과학을 통한 인식의 변화는 ‘지구라는 행성에

서의 인간이라는 현상'을 알게 해주었다. 이처럼 박자세는 나에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을 만나게 해주었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것은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유구한 역사도, 슬픈 사랑도, 고통의 나날들도, 승리의 시간도 모두 이야기가 된다”는 어느 수필의 한 대목처럼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문득 생각해 보면 ‘내가 진정으로 얘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맘껏 얘기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내가 슬프고 괴롭고 외로울 때 맘껏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나누고 싶은 주제에 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며,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대화를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나. 이런 대화를 맘껏 펼칠 수 있는 공간과 사람이 있는 곳, 그 곳이 바로 유토피아가 아닐까.


언젠가 박문호 박사는 ‘박자세에서의 공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함께 공부하며 삶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자연 과학을 도구로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직업의 사람이 자연과학이라는 한 가지 공통분모로 모인 유토피아가 바로 박자세이다. 그곳에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스승이 있고 그에 맞게 짜인 공부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죽는 날까지 이 유토피아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내 바람이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다. 그 만남은 나를 바꾸고 세상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박자세와의

만남은 내게 자연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동안 잊었던 돌과 흙, 풀잎의 하늘거림, 꽃향기의 기다림, 아스팔트 밑에서 일 년에 손톱만큼씩 움직이는 대지를 만나게 한다.

자연탐사를 나가 야영하던 날 나는 보았다. 지표면의 높은 온도에 아지랑이가 되어 흔들흔들대던 별의 춤을. 옆에는 다른 탐사대원이 침낭에서 머리를 빼꼼 내밀어 하늘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었고, 그 순간 나는 또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자연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자신을 내어보이지 않는다. 박자세의 공부를 통해 나는 위대한 자연을 만나고 있다. 이 공부를 통해 많은 것을 새로 배운 만큼 자연과학에 대한 공부의 열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지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www.mhpark.co.kr)은

대학 과정의 자연과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일반인의 학습모임이다. 천체물리학, 분자생물학, 뇌과학 등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뇌, 생각의 출현』의 저자이자 박자세의 운영자인 박문호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는 박자세의 목적을 ‘시공의 사유’, ‘기원의 추적’, 그리고 ‘패턴의 발견’이라는 시선으로 행성 지구에서 생명 현상을 계속해서 함께 공부함에 두고 있다. 자연과학적 깨달음은 철학이나 종교와 마찬가지로 감동을 주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필독서 도서를 선정해서 자연과학으로 공부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프로그램은 〈137억년 우주의 진화〉, 〈특별한 뇌과학〉 강의와 〈뇌과학 심포지엄〉, 매달 회원들의 발표로 이뤄지는 〈천문우주 뇌과학 모임〉이 있고 하와이 마우나케아 천문대, 서호주, 몽골 고비사막, 미국남서부 등 〈해외학습탐사〉와 〈국내학습탐사〉가 있다.